

오랜 시간 중국과 교류를 통해 중국의 문화는 나가사키의 연중행사와 식습관 등 다양한 문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사(唐寺: 중국의 절)》



'나가사키 명승도'에 그려진 소후쿠지(崇福寺) 절

나가사키에 내향한 중국인은 출신지별로 고향 단체를 만들어, 고후쿠지(興福寺) 절, 후쿠사이지(福濟寺) 절, 소후쿠지(崇福寺) 절을 관리하였습니다. 황벽종(黃檗宗)의 사원인 이 절들의 중국인 승려들에 의해 나가사키에 중국 남부의 문화가 전해졌습니다. 만, 1724년을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류는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서책과 그림 등을 감정하는 지역 관리(唐繪目利)였던 와타나베 슈세키는 고후쿠지(興福寺) 절의 3대 주지였던 일연(逸然)으로부터 중국의 그림을 배웠습니다.



와타나베 슈세키(渡辺秀石)의 야토군자쿠즈(野稻群雀圖: 비와 참새의 그림)

나가사키에서는 중국 상인 중 특히 시와 서예, 그림, 음악 등을 즐기는 문화인을 내박청인

(來船清人)이라 불렀습니다. 내박청인을 통해 전파된 다양한 중국식 화법(畫法)을 일본에서는 나가사키파(長崎派)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연중행사》



용춤도 ("달인주거지 두루마리 그림"의 일부), 카와하라 케이가 작품, 에도시대 후기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

나가사키의 연중행사 중에는 페론, 연날리기, 추석, 쇼로나가시, 군치 축제 등과 같이 중국의 풍습과 문화의 영향을 받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문화》

나가사키에는 중국풍의 요리를 나가사키식으로 재해석한 싯포쿠요리(卓袱料理)와 중국식 과자, 북송아만주, 왕굴 절임, 치마키(떡) 등이 있습니다.



당관관(唐館) 그림첩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

《내박청인 (來船清人)》



청인초상화(淸人画像)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

